

인류문화회원 명단 <2018.3월기준>

번호	지역	성명	역할	고유번호	내겐 짱이란?
1	함평	서민호	1대 대표	KZ2014-01-31-1	
2	함평	모가은	2대 대표	KZ-2015-02-28-1	
3	함평	서윤조	3대 대표	KZ2016-02-26-1	<p>"사람의 맘을 너그럽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같이 세상을 함께 열줄 아는 사람입니다."</p> <p>짱하기 전에는 나 스스로가 평소 원래 아는 친구들만 만나고 노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게다가 처음보거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도 못걸고 그랬는데 짱하고 나서 많은 새로운 친구들 짱들을 만나면서 내가 먼저 말도 걸고 그런 것들이 스스로 변화한 것 같다고 느낄 정도다! 물론 말 걸고 주제가 없어지면 왠지 모를 어색함이 돌기도 하지만!! 그리고 평소 만나는 사람이 적었던 나에게 화, 금요일마다 만나서 좋다!!</p> <p>그리고 평소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 들을 했다. ex)시장에서 희망이 있는지 묻기라던가...솔직히 처음에는 어떻게 상인분들께 말 걸지도 모르겠었고, 나중에는 막판에는 아무런 스펀지 없이 말을 걸었다</p> <p>짱에서 하는 멘토열토, 인류문화활동 같은 여러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 했다는 것에 와~~내가 이런것도 했어!! 하면서 완저 뿌듯하기도 하고 다른 애들은 못해본것을 했다는 것에 뭔가 우월감^^도 약간씩 들고 그리고 멘토 열토를 할때 짱들 만나게 가장 좋다.</p> <p>항상 뭔가 변화하고 있는 짱 신기하기도 하다.</p> <p>내가 지금같이 하고 있는데 쑥쑥 변화하고 여러 도전도 우리들끼리 해본 것도 그러하고 그리고 짱 다니기전까지 생각도 못해봤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도 하게 되고 나 스스로가 나의 미래에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봤던건 짱에서 활동하기 때문이였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진로에 대해 하는 활동이 생겨서 나 스스로 뿌듯하다. 앞으로 내가 주하고 3학년이 끝나도 내가 계속 멘토열트라 참여하거니까 짱이 계속되며 좋게다</p>

4	함평	김선재	4대 공동대표	KZ20160228-1	<p>짱을 일단 백이의 추천으로, 처음 듣게 되고 백이, 황이의 추천으로 짱에 들어오게 되었다.</p> <p>짱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하는 곳인지 짐작이 안 됐고, 살짝 긴장도 했다.</p> <p>직히 이 곳이 뭐라고 면접도 보지?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후회할 따름일 정도로 짱은 훌륭한 곳이었다.</p> <p>다른 사람이 보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훌륭한 곳이다.</p> <p>인간관계도 키워주고 확실한 진로를 세워주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인성교육도 받고 다양한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, 진정한 희망을 알 수 있고,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,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, 자신과 맞는 공부방법을 찾을 수 있고, 자신에 대해 더욱 알 수 있고,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등 많은 장점, 배울점, 생각할 점이 있다.</p> <p>지금 생각해 보니 짱 멤버들이 자랑스러운 것 같다.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시험, 시련이 있었으나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 넘으며 발전해가는 멤버들이 자랑스럽다.</p> <p>나는 짱 들어가기 전에 꿈, 직업이라는 생각은 학교 진로시간에 잠시 생각하는 것 뿐이었으나, 지금은 확실치 않지만 진로를 선택한 것 만으로도 나에겐 엄청난 행복과 든든함이었다.</p> <p>난 앞으로도 짱이 흐하고 참된 길을 가기를 바란다.</p>
5	나주	박현빈	4대 공동대표	KZ20160228-6	
6	순천	강유선		KZ-2016-02-26-2	
7	광주	기가연		KZ-2016-02-26-4	
8	광주	임이랑		KZ-2016-02-16-3	
9	함평	김영권		KZ20170228-2	<p>짱에 처음 들어 왔을때에는 처음이라 이거 뭐지 뭐하는 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.</p> <p>그런데 점차 짱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하는 곳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알아 갔다.</p> <p>그리고 이 활동들은 나에게 많은 경험을 심어 주었다.</p> <p>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,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</p>
10	함평	최지연		KZ20170228-3	

11	함평	임 백		KZ20170228-3	<p>짱에 대해 진짜 아는 척해도 몰랐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짱에 대해 알아가는 것 같고, 이곳 저곳 희망을 전파 해주니 뭘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전해줄 때마다 나의 마음도 편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.</p> <p>그리고 1기다음, 2기, 3기 등 다양한 사람이 들어올때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기분이 좋고 앞으로 도 우리가 중학생을 벗어나더라도 쭈욱 짱의 분위기가 유지 되었으면 좋겠다.</p> <p>짱에게 바라는 점은 앞으로도 쭈욱 영원히 함께하고 비록 어떨때마다 분위기가 흐려질때가 있지만 단합하고 서로서로 챙겨 주었음 하다.</p>
12	함평	나예빈		KZ20170228-3	
13	함평	임 황		KZ20170228-7	<p>짱은?</p> <p>1)우정이 돈독하다. 2)모두를 생각하고 1명이라도 빠지면 실행하지 않는다. 3)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소수의 의견을 중요시 하는 것 같다. 4)서로서로 배려심이 깊다. 5)의지가 강하다.</p> <p>2013년 7월 13일 짱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.</p> <p>우리는 그때 그렇게 거창하게도 화려하게도 하지 않았지만 그때 짱 출범은 정신이 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 있다.</p> <p>그 후 우리짱은 인원부족으로 위기를 느끼기도 하였다. 하지만, 그래도 우리 모두가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덜컥거리던 짱을 활발하고 거침없이 나가는 자동차가 되었다.</p> <p>그러면서 인류문화활동을 하면서 서로 공감 하면서 희망을 찾아 나섰던게 정말 좋았다. 짱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시간을 참 보람차게 보냈던 것 같다.</p>
14	함평	김태헌	5대 공동대표	평생친구20180224-1	
15	나주	조다윤		평생친구2018-224-2	